

무료신문 전성시대, 그리고 ‘책읽기’

아침 지하철 책읽는 사람 드물다… ‘과연 무료신문 탕?’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엇갈려

경기도 일산에서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회사원 정기영(45) 씨는 “예전엔 그나마 지하철에서 간혹 책이라도 읽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다”고 말했다. 지하철 입구에서 무료신문 3~4부를 챙기면, 직장까지 가는 40~50분 동안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한 모군(22, H기독교대학교 4년)도 “요즘은 지하철에서 주로 무가신문을 읽는다”며 “적어도 아침 시간엔 남녀 불문하고 책을 읽는 사람은 극히 보기 드물어졌다”고 지하철 풍경을 전했다.

무료신문은 이제 매체 문화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방과)는 “무가신문은 자유경쟁 시스템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소비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료신문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에 대해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글읽기’란 측면에선 부정적 목소리가 우세하다. 과연 무료신문의 정보나 텍스트가 읽을 만한 ‘글’ 인가를 둔 논란이다.

무가지, ‘타이널 정보 전달’ 천명…책읽기 관련 문화적 영향 논란

이에 대해 무료신문의 원조라고 할 메트로 인터내셔널의 카를로스 올리바 벨라크 부사장의 말은 역설적으로 새겨들을 만한 얘기다. 최근 있는 세계신문협회 서울총회에서 세계 17개국에서 배포되는 이 신문의 편집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념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신문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뉴스 그 자체를 원하므로 메트로는 정치적·종교적으로 특정 이념에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언론인은 “‘이념’이 없고, 주관이나 평가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언론’이기 위해선 사회와 세상에 대한 나름의 규범적 시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하철 등에서 ‘책을 읽는 모

습’이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주동환 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부)는 “무료신문은 철저히 수익 창출을 목표로 고안된 수단일 뿐,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보겠다거나, 글읽기 문화에 기여하겠거나, 기사에서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고 진실만을 추구하겠다는 저널리즘 원칙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다.

자외에 의해 돈을 주고 사서 보는 신문과는 달리,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지하철의 책읽기 공간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실제로 수도권 통근시장의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무차별 배포로 독서기회 박탈’ vs ‘기존 신문·출판계도 각성해야

메트로 인터내셔널의 벨라크 부사장은 “메트로의 독자 연령층은 13~49세가 73퍼센트를 차지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53퍼센트, 47퍼센트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글읽기’와 사유의 시간과 공간을 왕성하게 확보해야 하는 세대와 연령층을 두루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무료신문 비판자들은 특히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소비되기보단,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뿌림으로써 수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책읽기’ 등 다른 독서의 기회나 수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북대 김 교수는 “제 역할을 못하는 일간지와 함께 출판계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의 현상은 가뜩이나 책읽기가 생활화돼 있지 않은 현실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김 교수는 “그러나 출판하는 이들 역시 생산·유통 과정에서 끊임없이 독자 수요 창출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

출판저널 편집부